

한의학 용어 I 소스 9주차

강의 날짜: 2025. 5.1. (목) 배인태 교수님

제작: 정수웅, 장하늘

검토: 변성민

<제3권> 明心寶鑑 명심보감 (밝을 명/마음 심/보배로울 보/ 거울 감)

-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 공자 왈 등은 시험에 나오지 x(왈 뒷 부분이 중요)
- 교재 페이지 별로세로읽기 기준으로 한 줄 씩 작성 (내용이 다음 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어서 작성)
- 교수님이 한자본을 올리신 관계로 한자 포함해 작성
- 교수님이 한 글자 씩 훈음하시지 않아 훈음은 생략
- 시험은 한자 보고 해석이 중요! (토를 안 달고 한문 구절만 나옴)
-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한자와 뜻이 일맥상통하기만 하면 됨) 대부분은 교수님 말씀 바탕으로 해석을 정리했지만, 말이 어색하거나 뜻이 이상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석을 다듬음. (빨간 글씨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문)

교재 12쪽

安分篇

1 景行錄에 云知足可樂이요 務貪則憂니라

경행록에 운지족가락이요 무탐즉우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만족함을 알면 가히 즐겁고, 탐함에 힘쓴 즉 근심하니라

2 知足者は 貧賤도 亦樂이요 不知足者は 富貴도 亦憂니라

지족자는 빈천도 역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귀도 역우니라

만족을 아는 자는 빈천도 또한 즐겁고 만족을 알지 못한 자는 부귀도 또한 근심하니라

3 知足常足이면 終身不辱하고 知止常止면 終身無恥니라

지족상족이면 종신불욕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취니라

만족을 알아서 항상 만족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아 항상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교재 12-13쪽

4 擊壤詩에 云安分身無辱이요 知幾心自閑이니 雖居人世上이나 却是出人間이니라
 격양시에 운안분신무욕이요 지기심자한이니 수거인세상이나 각시출인간이니라
 격양시에 이르기를 분수를 편안히 하면 몸이 욕됨이 없고 기미를 알면 마음이 저절로
 한가로우니 비록 인간세상 위에 사나 문득 인간 세상에 벗어나니라 (나온다는 뜻)

5 子 曰不在其位하면 不謀其政이니라
 자 왈부재기위하면 불모기정이니라
 자 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치를 꾀하지 말지어라

存心篇

1 景行錄에 云坐密室如通衢하며 馭寸心如六馬면 可免過니라
 경행록에 운좌밀실여통구하며 어촌심여육마면 가면과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밀실에 앉기를 사통팔달 거리처럼 하며
 한마디 마음 부리기를 여섯말처럼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하니라

2 擊壤詩에 云富貴를 如將智力求면 仲尼年少合封侯라 世人은 不解靑天意하고 空使身心半夜愁니라
 격양시에 운부귀를 여장지력구면 중니연소합봉후라 세인은 불해청천의하고 공사신심반야추니라
 격양시에 이르기를 만약 부귀를 지력으로 구하면 중니(공자)가 나이가 적어도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속절없이 심신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근심하게 하니라

3 范忠宣公이 戒子弟曰人雖至愚나 責人則明하고 雖有聰明이나 恕己則昏이니
 爾曹는 但當以責人之心으로 責己하고 恕己之心으로 恕人則不患不到聖賢地位也니라
 범충선공이 계자제왈인수지우나 책임즉명하고 수유충명이나 서기즉혼이니
 이조는 단당이책인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즉불환불도성현지위야
 범충선공이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타인을 꾸짖은 즉 밝고, 비록 충명함이 있으나 자기를 용서한 즉 어두우니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사람을 꾸짖은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한 즉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느니라

4 子 曰聰明思睿라도 守之以愚하고 功被天下라도 守之以讓하고 勇力振世라도 守之以怯하고 富有四海라도 守之以謙이니라
 자 왈충명사예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력진세라도 수지이겁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니라
 자 왈 충명하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더라도 어리석음으로써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더라도

지키리를 겸손으로써 하고 용력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지키리를 겁으로써 하고 부유함이 사해를 두더라도 지키기를 겸손으로써 하니라

5 百巧百成이 不如一拙이니라

백교백성이 불여일졸이니라

백 가지 재주와 백 가지 이루어짐이 하나의 옹졸함 같지 못하니라

6 素書에 云薄施厚望者는 不報하고 貴而忘賤者는 不久니라

소서에 운박시후망자는 불보하고 귀이망천자는 불구니라

소서에 이르기를 얹게 베풀고 두텁게 바라는 자는 보답받지 못하고 귀하지만 천할 때를 잊는 자는 오래가지 못하니라

7 施恩이거든 勿求報하고 與人이거든 勿追悔하라

시은이거든 물구보하고 여인이거든 물추회하라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타인에게 주거든 미루어 후회하지 말라

8 孫思邈이 曰膽欲大而心欲小하고 知欲圓而行欲方이니라

손사막이 왈담욕대이심욕소하고 지욕원이행욕방이니라

손사막이 말하기를 담은 크고자 하고 마음은 세밀하고자 하고 지혜는 둥글고자 하고

행실은 바르고자 하니라 (★ 손사막 : 당나라 때 유명한 의사라고 강조하심)

9 念念要如臨戰日이요 心心常似過橋時니라

념념요여임전일이요 심심상사과교시니라

생각마다 반드시 전쟁에 임하는 날 같이 하고, 마음마다 항상 다리를 건너갈 때 같이 하라

10 懼法朝朝樂이요 欺公日日憂니라

구법조조락이요 기공일일우니라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공적인 것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니라

11 朱文公이 曰守口如瓶하고 防意如城하라

주문공이 왈수구여병하고 방의여성하라

주문공이 말하기를 입 지키기를 병과 같이 하고고 뜻 막기를 성과 같이 하라

12 心不負人이면 面無慙色이니라

심불부인이면 면무참색이니라

마음이 타인에게 빚지지 아니하면 얼굴은 부끄러운 낯이 없느니라

13 人無百歲人이나 枉作千年計니라

인무백세인이나 왕작천년계니라

사람은 백세까지 사는 사람은 없으나 쓸데없이 굶어서 천년의 계획을 세우니라

14 寇萊公六悔銘에 曰官行私曲失時悔요 富不儉用貧時悔요 藝不少學過時悔요 見事不學用時悔요 醉後狂言醒時悔요 安不將息病時悔니라

구례공육해명에 왓관행사곡실시회요 부불검용빈시회요 예불소학과시회요 견사불학용시회요 취후광언성시회요 안불장식병시회니라

구례공육회명에 가로되 관리가 사적으로 굶은 것을 행해서 잃어버릴 때 후회하고 부자가 검소할 때 사용하지 못하여 가난할 때 후회하고 재주를 젊어서 배우지 않아 때를 지날 때 후회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아 쓸 때 후회하고 취한 뒤에 미치게 말하여 술 깬 뒤에 후회하고 편안할 때 장차 쉬지 않아 병들 때 후회하니라

교재 13-14쪽

11-1 益智書에 云寧無事而家貧이언정 莫有事而家富요 寧無事而住茅屋이언정 不有事而住金屋이요 寧無病而食麤飯이언정 不有病而食良藥이니라

익지서에 운 영무사이가빈이언정 막유사이가부요 영무사이주모실이언정 불유사이주금실이요 영무병이식추반이언정 불유병이식양약이니라

익지서에 이르기를 차라리 일이 없어서 집안이 가난할지언정 일이있어서 집이부자가 되지말고 (차라리 일없어집이 가난할 지언정 일이 있어서 집안이 부유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일이 없어서 띠집에 거주할 지언정 일이있어서 좋은집에 거주하지말고 차라리 병이없어서 거친밥을 먹을지언정 병이있어서 좋은 약을 먹지 말아라

2 心安茅屋穩이요 性定菜羹香이니라

심안모옥온이요 성정채갱향이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편안하고 (띠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하면 나물과 국도 향기로우니라

교재 14쪽

3 景行錄에 云責人者는 不全交요 自恕者는 不改過니라

경행록에 운 책임자는 불전교요 자서자는 불개과니라

타인을 꾸짖는 자는 사قم이 온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용서한자는 허물을 고치지 않느니라

4-5 夙興夜寐하여 常思忠孝者는 人雖不知나 天必知之요 飽食暖衣하여 怡然自衛者는 身雖安이나 其如子孫에 何오

숙흥야매하여 소사중효자는 인수부지나 천필지지요 포식난의하여

이연자위자는 신수안이나 기여자손에 하오

일찍일어나고 밤에늦게자서 충성과효도를 생각하는 바의 남은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바의 사람은 사람이 비록 알지 못하나 하늘은 반드시 알고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입어 화한듯이 스스로 지키는 자는 몸이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이 어떠하리오

6-8 以愛妻子之心으로 事親則曲盡其孝요 以保富貴之心으로 奉君則無往不忠이요 以責人之心으로 責己則寡過요 以恕己之心으로 恕人則全交니라

이애처자지심으로 사친즉곡진기효요 이보부귀지심으로 봉군즉무왕불충이요 이책인지심으로 책기즉과과요 이서기지심으로 서인즉전교니라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아버지를 섬긴즉 그 효도를 굽이굽이 다하고(간곡히 다하고) 부귀를 보존하는 마음으로써 임금을 받든 즉 어디를 가나 충성하지 않음이 없고 타인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은 즉 허물이 적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타인을 용서한 즉 교제가 온전하니라(사قم이 온전하니라)

9-10 爾謀不臧이면 悔之何及이며 爾見不長이면 教之何益이리오 利心專則背道요 私意確則滅公이니라

이모불장이면 회지하급이며 이견불장이면 교지하익이리오 이심전즉패도요 사의확즉멸공이니라

너의 꾀가 착하지 아니하면 후회한들 어디에 미치며 너의 견해가 자라지 않으면 가르친들 무슨 이익이리오 이로운마음이 오로지 한즉 도에 어긋나고 사의가 확고한 즉 공적인 것을 면하니라

11 生事 事生하고 省事 事省이니라

생사사생하고 생사사생이니라

일을 낳으면 일을 낳고 일을 덜면 일이 줄어드니라

12 戒性篇 계성편

교재 15쪽

1-2 景行錄에 云人性이 如水하여 水一傾則不可復이요 性一縱則不可反이니 制水者는 必以隄防하고 制性者는 必以禮法이니라

경행록에 운 인성이 여수하여 수일경즉불가복이요 성일종즉불가반이니 제수자는 필이제방하고 제성자는 필이에법이니라하고 제성자는 필이에법이니라

경행록에 가로되 사람성품이 물과같으니 물이 한번 기울은 즉 가히 돌이킬 수 없고 성품이 한번 방탕한 즉 돌이킬 수 없으니 물을 제어하는 자는 반드시 제방으로써 하고 성품을 제어하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써하니라

3 忍一時之忿이면 免百日之憂니라

인일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우니라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니라

4 得忍且忍하고 得戒且戒하라 不忍不戒면 小事成大니라

득인차인하고 득계차계하라 불인불계면 소사성대니라

참음을 얻으면 또 참고 경계를 얻으면 또 경계하고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적은일이 큼을 이루니라(득은 조동사 must로 해석도 가능)

5-6 愚濁生嗔怒는 皆因理不通이라 休添心上火하고 只作耳邊風하라

長短 家家有요 炎涼處處同이라 是非無實相하여 究竟摠成空이니라

우탁생진노는 개인이불통이라 휴첨심상화하고 지작이변풍하라

장단가가유요 염량처처동이라 시비무실상하여 구경총성공이니라

어리석고 탁한 사람이 성질을 낸은 모두 다 이치가불통함으로 인함이라

마음위에 불을 더하지말고 다만 귓가의 바람으로 생각해라(지나가는 말로 생각해라)

장점단점은 집집마다있고 덥고 추위는 곳곳마다 같으니라 시비는 실상이 없고 마침내 다 빈 것이 되니라

교재 15-16쪽

7-3

子張이 欲行에 辭於夫子할새 願賜一言爲修身之美한데 子 曰百行之本이 忍之爲上이니라 子張이 曰何爲忍之이꼬 子 曰天子忍之면 國無害하고 諸侯忍之면 成其大하고 官吏忍之면 進其位하고 兄弟忍之면 家富貴하고 夫妻忍之면 終其世하고 朋友忍之면 名不廢하고 自身忍之면 無禍害니라 子張이 曰不忍이면 如何니이꼬 子 曰天子不忍이면 國空虛하고 諸侯不忍이면 喪其軀하고 官吏不忍이면 刑法誅하고 兄弟不忍이면 各分居하고 夫妻不忍이면 令子孤하고 朋友不忍이면 情意疎하고 自身不忍이면 患不除니라 子張이 曰善哉善哉라 難忍難忍이여 非人이면 不忍이요 不忍이면 非人이로다

자장이 욕행에 사어부자할새 원사일언위수신지미한데자 왓 백행지본이 인지위상이니라자장이 왓 하위인지이꼬자 왓 천자인지면 국무해하고 제후인지면 성기대하고 관리인지면 진기위하고 형제인지면 가부귀하고 부처인지면 종기세하고봉우인지면 명불폐하고 자신인지면 무화해니라 자장이 왓 불인이면 여하니이꼬자 왓 천자불인이면 국공허하고 제후불인이면 상기구하고 관리 불인이면 형법주하고 형제불인이면 각분거하고 부처불인이면 영자고하고 봉우불인이면 정의소하고 자신불인이면 환불제니라

자장이 왓 선재선재라 난인난인이여 비인이면 불인이요 불인이면 비인이로다

자장이 가고자할 때에 공자에게 사직할새 원컨데 한마디를 주어서 몸을 수양하는 아름다움으로 삼고자 합니다.자왓 백행의 근본이 참는 것이 제일 위가 되니라 자장이 왓 무엇이 참음입니까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가없고 제후가 참으면 그 큼을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그자리에 나아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고 부부가 참으면 그 세대를 마치고 (이혼하지않고 잘 산다) 봉우가 참으면 이름이 패하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근심과 화가 없느니라

자장이 가로되 참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자왓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고 제후가 참지않으면 그 몸이 죽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 죽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나누어 살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외롭게 하고 봉우가 참지 못하면 정의가 소원하고 자신이 참지 못하면 근심이 제거되지 못하니라

자장이 가로되 좋구나 좋구나 참기 어려움이요 참기 어려움이요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다